

바누아투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격리된 상태에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었는데, 불과 4일 전에 바누아투 역사상 2번째로 강한 태풍이 나라를 할퀴고 지나가며, 또 하나의 재난이 닥쳤습니다. 태풍 해롤드는 5급 초대형 태풍으로 바람 속도가 250km-300km으로 엄청난 비를 퍼 부어 산토섬을 포함한 바누아투의 북쪽 반이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바누아투의 모습)

산토섬의 피해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여기 저기 도로가 막히고, 시내에는 전기, 물, 인터넷 공급이 어려움이 있으며, 셀수 없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전에 바다가 안 보였지만, 이제는 사라진 나무와 다 떨어진 잎사귀로 바다가 보이기도 합니다.

사역하는 블루인다 교회는 이번 태풍으로 교회, 식당, 주일학교 건물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그 형제를 알아보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날아간 양철들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교인들을 포함하여 이 지역, 반반, 밀리온달러 지역은 이번 태풍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베르나드 목사의 집)



(부서진 교회)



(부서진 선교센터)

선교센터는 건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양계장, 부엌, 숙소, 태양광 시설, 목재소등 많은 시설의 지붕 구조와 양철지붕들이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센터 선교사들은 안전합니다.

산속에 사역하는 30명의 선교사들은 4일이 지난 오늘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신이 안되고, 내려오는 길이 홍수, 나무,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역에 있는 교회, 학교, 유치원, 보건소, 선교사 숙소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빨리 구호를 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에서 음식물을 훔치는 소식이 들리고, 폭동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여 외부 원조를 받는 것을 허락치 않고 있으며, 구호 단체가 혹시 오더라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핸드폰에 머물고 있습니다. 곧 뱃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선교센터의 피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 블루인다 교회의 모든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졌으며, 산속에 있는 선교사들의 소식이 아직도 없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 바누아투 정부 재난부서가 빨리 일을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음식이 부족해 훔치거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연락처

Skype: Chunhee Tueni Won

WhatsApp: Chunhee Tueni

Kakao: 산토김난주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hunheetony.won>

Mobile phone: 64-22-5973-800

바누아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